

한말 기독교 신문과 민족국가 만들기

류대영(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들어가는 말

최근 역사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민족주의다. 1980년대부터 일고 있는 이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의 지배적인 특징은 민족을 “허구” 혹은 “상상”의 결과물로 해석한다는 데 있다.¹⁾ 즉 오늘날의 국기를 형성하는 민족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자연발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근대 이후 민족국가(nation state)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은 근본적으로 서구중심적인 역사관인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서구는 진보하여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세계사는 서구의 근대문명이 보편적 문명으로 되어 가는 과정, 즉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²⁾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은 민족주의, 그리고 그것의 산물(產物)인 민족이 18세기 이후 서양에서 근대적 민족국가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것이 비서구의 국가에 전이되어 갔다고 본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19세기와 20세기, 특히 1945년 이차대전 종전 이후 비서구 지역에서의 민족주의와 국가건설은 서구 근대문명의 하나로 인식된 민족주의를 비서구 지역 사람들이 수용하여 적용한 결과였다.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에서 민족이란 오래된 종족 공동체나 기존의 정치적 범주와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물론 민족이나 민족성, 그리고 민족주의는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일이 불가능할

1) 예를 들어, Anthony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8*; Hans-Ulrich Wehler, *Nationalismus: Geschichte, Formen, Folgen* (Verlag C.H. Beck, Munchen, 2001) (한스 울리히 벨러(지음), 이용일(옮김), 《허구의 민족주의》(푸른역사, 2007)).

2) Joyce Appleby, Lynn Hunt, and Margaret Jacob,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ew York: Norton, 1994), 55-56.

정도로 복잡한 현상이다. 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연구자는 민족(nation-ness), 민족성(nationality), 그리고 민족주의를 “특별한 종류의 문화적 가공품(artefacts)”이라고 불렀다.³⁾ 민족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것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민족주의자들(혹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반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근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민족이 근대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공품”이라면,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역사는, 그 정체가 무엇이든 적어도 그 민족의 역사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단일민족으로서의 한(조선)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의 민족국가 형성기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게 탄생한 민족이 그 이전 한반도와 주변에 존재했던 여러 통치공동체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소급시켜 만들어버린 셈이 된다.⁴⁾

이와 같은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을 한국사에 적용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가 탄생한 것은 조선 왕조가 제국주의 경쟁 앞에서 존멸(存滅)의 위기를 맞던 시점이었다.⁵⁾ 이때 조선은 서구중심적인 국제질서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을 경협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서구 문명과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해야 했다.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서구적 근대화를 뜻하던 ‘문명개화(文明開化)’를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였다.⁶⁾ 문명개화는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서구화를 의미했는데,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도 그 속에 들어 있는 한 요소였다. 개항 이후 조선을 문명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각기 다른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한말의 문명개화 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개항 직후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은 일제 강점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이 그 역할을 자임하게 될 때까지 문명개화의 담지자로 오랫동안 역할 했다. 이 논문은 미국 선교사들이 발행했던 한글 신문을 분석하여, 그들이 전한 문명개화론 속에 어떤 민족국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드러내도록 하겠다.

I. 기독교 신문과 문명개화론의 전파

개항기와 한말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미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전파뿐 아니라 서구문명 전하는 것을 사명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헤버 존스(G. Heber Jones), 올리버 애버슨(Oliver R. Avison) 등 선교사들 가운데서

3) Anderson, 4.

4) 근대의 민족이 과거 통치공동체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만드는 데 관해서는, 벨리, 67-73 참조.

5)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6) ‘문명개화’ 외에 ‘문명진보,’ ‘개명진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도 지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학구적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서구문명 전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구문명이 전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데, 서구문명의 잣대로 잴 때 조선은 기껏해야 ‘반(半)개화’한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⁷⁾ 조선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졌던 선교사들은 조선도 시급히 서구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문명개화론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일 가운데, 특히 교육, 의료, 문서, 언론출판 등의 사업은 문명개화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 이론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발행했던 한글 신문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발행했던 최초의 신문은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이하 <회보>)와 <그리스도신문> (이하 <신문>)이었다. <회보>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1897년 2월 2일 창간하여 대체로 주간(週刊)으로 발행하던 46면 분량의 순한글 신문이었다.⁸⁾ <신문>은 <회보>보다 두 달 늦은 1897년 4월 1일 북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창간하여 간행하다가 1904년부터는 장로교회의 공식 신문이 된 순한글 주간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8-10면으로 간행되어 <회보>보다 분량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활자체, 구성, 내용의 다양성 등에서 <회보>보다 더 나아갔다.

<신문>과 <회보>는 선교사가 편집과 발행의 책임을 맡았던 기독교 신문이었다. 그러나 두 신문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일반인을 독자층으로 삼고 있었다. 창간호에서 <회보>는 “진리대도의 근원”과 아울러 “소문의 괴이한 것”을 알려 “지식과 학문”을 널리 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명에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⁹⁾ 따라서 <회보>는 감리교인뿐 아니라 “다른 교회나 교외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¹⁰⁾ 선교교회적 목적과 개화계몽적 목적을 겸하고자 했던 이와 같은 성격은 장로교의 <신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문>은 창간 특집 기사에서 서구 문명의 탁월함과 조선의 낙후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부강한 나라”들이 “더 훌륭한 것”과 “일 형하는 디와 사는 때에 나흔” 것을 알려 조선인들이 “문명흔 새로운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¹¹⁾ <신문>의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교회와 또 우리나라 전국 인민들”을 위해서 “학식과 문견을 넓히고자” 함도 의도하는 바였다.¹²⁾ <신문>의 초기 편집자였던 언

7)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2(2005년 3월), 11-15.
 8) 이 신문은 그해 12월 초 국호가 대한으로 바뀌어 제국(帝國)이 되자 제목을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꾸었는데, 1900년 9월 아펜젤러가 안식년 휴가를 맞아 미국으로 가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은 1902년 6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보>는 1905년 장감연합 신문인 <그리스도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한 1905년 7월까지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아펜젤러가 안식년으로 출발하기 전인 1900년 8월 29일 호까지만 남아있고, 그 이후 1905년까지 분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펜젤러의 죽음으로 인해 복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조선 회보라 한 뜻술 발명함이라,”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이하 <회보>) 1897년 2월 2일 이하 모든 원문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원문의 표기법 그대로 인용함.
 10) “고백,” <회보> 1897년 2월 2일.
 11) “지식,” <그리스도신문> (이하 <신문>) 1897년 4월 8일.
 12) “농리 편설: 론설,” <신문> 1897년 12월 31일; 또한, “공장 편리설: 론설,” <신문> 1897년 12월 31일;

다우드는 종교적인 목적과 아울러 “인민이 편리하고 나라히 부르게 할” 방법을 가르쳐 “나라를 기명케”하고, “태서 각국과 비견하여 문명함을 세계에 빛내”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다.¹³⁾

1905년 7월부터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신문> 을 간행했는데, 이때에도 편집방향은 과거와 동일했다. 그런데, 교파 간 연합사업으로 <신문> 을 발행할 때, 신문 편집 방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듯하다. 즉 한편으로는 종교적 내용에 더 비중을 두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구 문물에 관한 내용을 더 실어달라는 독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에 대해 “두 가지를 상반히 흠이 올흠”이라는 1906년 6월 21일의 <신문> 논설은 “학문과 괴서(寄書)와 교회통신을 상반되게 괴지”하는 것이 <신문> 의 목적에 합당하고 밝혔다.¹⁴⁾ 즉 서구문물(“학문”)에 대한 소개를 교인들의 기고문(“괴서”)이나 교회 소식과 함께 게재하는 것이 신문의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문명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문이 견지했던 기본적인 편집 원칙이었다.

<회보> 와 <신문> 은 교회를 넘어서 일반 대중을 독자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인들을 위한 잡지였던 <신학월보> 와 구별되었으며,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신문이라는 점에서 <협성회회보> (그 연장선상에서 발행된 <미일신문>)나 <독립신문> 과 달랐다. <신학월보> 는 창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학,” “성경도리,” “교회소괴”를 다루어서 교회의 발전과 교인의 신앙생활 증진을 추구한 순수한 교회 내부용 월간지였다.¹⁵⁾ 배재학당 학생 및 교사들의 정치계몽 조직인 협성회(協成會)의 회보였던 <협성회회보> 는 선교사들이 간여하지 않은 계몽적 신문이었고 주필 이승만은 이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미일신문> 은 <협성회회보> 에 대한 선교사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승만, 최정식 등이 만든 신문으로 역시 기독교 신문이 아니었다.¹⁶⁾ 또한 <독립신문> 은 기독교인인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도하고 신문 내용이 친기독교적이기는 해도, 조선 정부에서 창간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우송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특혜를 베푼 일종의 공공 기관이었다. 따라서 그 자체를 기독교 신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회보> 와 <신문> 은 선교사들이 책임진 기독교 기관이면서 선교사들이 자기들 스스로나 모국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발행했던 각종 영문 간행물과 달리 비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했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신문’이었다.

“론설,” <신문> 1897년 12월 2일. “농리 편설”과 “공장 편리설”은 미국 공사 존 실(John M. B. Sill)이 연재했다.

13) “론설,” <신문> 1897년 7월 8일; “시세론,” <신문> 1898년 2월 10일; “론설,” <신문> 1898년 2월 24일; “론설,” <신문> 1898년 1월 27일.

14) “론설 : 두 가지를 상반히 흠이 올흠,” <신문> 1906년 6월 21일.

15) “월보 설시함,” <신학월보> 1/1 (1900년 12월).

16)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연세대출판부, 2002), 9.

II. 기독교 신문이 전한 민족국가

〈회보〉와 〈신문〉은 다양한 기사를 통해 “전국 인민들”에게 문명개화를 전하고자 했다. 두 신문의 문명개화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양의 과학과 기술, 제도와 풍습, 그리고 역사와 인물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구의 문명이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회보〉는 발간 초기에는 “지식과 학문”을 다루는 독립된 항목이 없었다. 그러나 1898년 1월부터 “니보,” “외보”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니외국 소문과 농상의 리치”를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¹⁸⁾ 한편, 〈회보〉보다 문명개화 관련 기사를 더 많이 게재했던 〈신문〉은 “농리 편설”과 “공장 편리설”이라는 연속 기사를 통해 서양의 “농스와 공장의 학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매우 풍부하게 전해주었으며, 각종 상업 광고를 게재하고 각 지역의 물건 값을 비교하여 밝혀줌으로써 상업과 물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시세론,” “외방 통신,” “각국통신,” “외국 통신,” “던보” 등을 통해 해외 소식을 알려주었고, 미국이나 유럽 각국, 일본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문명국’의 모습을 전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근대적 민족국가에 대한 내용은 문명개화를 소개하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사 속에 산재(散在)하여 나타난다.

민족국가 성립과 관련된 두 신문의 기사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신문은 조선이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독립’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그 독립으로 인해 근대적 국가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여긴다.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있던 조선이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하나의 독립국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왕이 황제가 되고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일이나 문명개화를 위한 개혁적 노력은 근대적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두 신문은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이후 ‘조선 대신 반드시 ‘대한(‘대한국,’ ‘대한 사람,’ ‘우리 대한’ 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황제국으로서의 독립이라는 선언적 위상 변화뿐 아니라 국가의 내부가 변해야 했다. 두 신문은 민족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정자와 국민의 국가의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정자는 국민들을 사랑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들은 독립심과 책임감,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주독립과 문명개화

1897년 8월 6일자 〈신문〉 논설을 보면 “일본이 청국과 서로 싸움하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권리를 얻는 데”라는 표현이 나온다.¹⁹⁾ 청일전쟁 때 중국이 패했기 때문에 조선이 비로소

17) 류대영, ??

18) “대한그리스도인회보,” 〈회보〉 1898년 1월 5일.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문에 종종 등장하는 견해로서, 조선이 처한 새로운 환경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보여주었다. 청일전쟁이 조선에게 자주독립의 기회를 주었다는 말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던 시절의 조선이 주권국가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것은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전근대의 상징인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독립국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미국은 조선을 주권국가로 여기고 수교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은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종주권을 계속 해서 주장했던 것이다.²⁰⁾ 중국과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는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질서 속에 존재했던 독특한 국제관계로서,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의 근대적 국가관계와는 사뭇 달랐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질서를 붕괴시키고, 서구적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국제질서 속에 조선을 편입시킨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두 신문이 문명개화론을 열심히 전한 이유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선이 근대적 민족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빨리 문명개화 하여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볼 때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세력 싸움 외중에 주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의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큰 문제였다. 위에 인용한 〈신문〉 논설은 조선 사람들이 “독립하는 권계를 리웃 나라해서 엇엇스매” 독립을 지키는 힘도 이웃 나라 사람에게서 얻는 줄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¹⁾ 즉 조선 사람들이 독립을 스스로 쟁취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문명개화를 해야 백성과 관원이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회보〉와 〈신문〉에 따르면 문명개화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 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문명개화 한 나라만이 진정한 자주 독립국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주 독립이란 정치적인 주권을 넘어서는 무엇으로서, 서구식 근대화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1897년 3월 17일자 〈회보〉는 러시아 황제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윤치호가 배재학당에서 한 연설을 게재했다. 이 연설에서 윤치호는 자기가 구경한 것 가운데 가장 “괴하고 부러운 일”을 니열한 후 그것을 행하면 “츨 즈주독립 흘 기쵸”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그가 말한 가장 “괴하고 부러운 일”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인민을 교육하는 것, 감옥이 청결하여 수감자들이 건강한 것, 군율이 매우 엄하여 병사들이 방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는 땅 없이 나무를 심어 숲이 우거진 것 등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는 결국 지적·정신적인 차원, 법률·제도적인 차원,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의

19) “론설 : 우상의 허훈론,” 〈신문〉 1897년 8월 6일.

20)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44.

21) “론설 : 우상의 허훈론.”

22) “아라스에 열남훈 일,” 〈회보〉 1897년 3월 17일.

문명개화를 뜻했다. 1900년 6월 13일자 <회보>는 학교의 수, 수립의 율창한 정도, 그리고 감옥을 보면 개화국인지 미개화국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²³⁾ 문명개화의 정도가 곧 “츄주독립”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논리였다.

인민: 민족국가의 기틀

기독교 신문들이 지향했던 근대적 민족국가와 청산되어야 할 전근대적 조선 왕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새로운 민족국가가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인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897년 7월 8일자 <신문>의 “미국의 흥왕”이라는 기사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부와 백성의 근대적인 관계를 설파하였다. 이 기사는 “정부가 백성을 위하야 나고 백성이 정부를 위하야 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⁴⁾ 정부가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면 백성이 정부를 공경하고 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백성을 배반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백성이 정부의 “노복”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경계 업는 세”를 거둔 영국 정부에 대하여 싸우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조선의 삼분의 일에 불과한 5백만이었다고 밝히면서, 한 나라의 독립은 인민의 수가 아니라 “인민의 괴상과 총명”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상호계약적인 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군주를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국가관에 대한 비판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물론 군주국이라고 해서 근대적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공화국이든 군주국이든 인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좋은 나라였다. 1898년 10월 6일자 <신문>은 군주국인 “영국에서 신장정을 준행훈 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군주국인 영국이 어떻게 백성의 “츄주지권”을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조선도 그렇게 할 것을 권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만 관리를 천거할 수 있을 때에는 매관매직과 백성에 대한 수탈이 심했는데, 1835년 새 법을 만들어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공천권을 준 후로는 예전의 폐단이 없어지고 나라가 문명진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한다.²⁵⁾ 따라서 군주국인 조선도 구습을 버리고 백성에게 “츄주지권”과 관리 천거권을 주어 “백성의 공천하는 사람”을 관리로 임용하면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백성을 압제하는 악습도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²⁶⁾

1898년 12월 29일자 <신문>의 논설은 조선이 황제국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황민으로서 백성들이 모두 “츄주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²⁷⁾ 백성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없어져야 할 “구습의 악훈

23) “나무의 관계,” <회보> 1900년 6월 13일.

24) “농리 편설: 미국의 흥왕,” <신문> 1897년 7월 8일.

25) 1835년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법’인 것으로 보인다.

26) “영국에서 신장정을 준행훈 론,” <신문> 1898년 10월 6일.

형살"인 것이다. 이 논설에 따르면 독립이 견고하게 되는 것도 백성의 민권이 존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백성이 "나라 되는 기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독립하기 위해서는 구습을 버리고 "신식"을 준행하여 각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름의 자유권리"라는 제목의 1900년 3월 14일자 <회보> 기사는 인민에게 보장해야 할 자유를 논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쪼아하는 거슨 모름대로 헝헝고 굴복하며 거리끼는 거시 업서 악흔 일이든지 선흔 일이든지 임의로 호는" 것이 자유라고 밝혔다.²⁸⁾ 자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한 이 기사는 구체적으로 신체, 재산, 직업, 집회, 종교, 언론, 명예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런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평한 법률로 그와 같은 백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근대적인 법률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체계가 이미 도입되었으므로,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있었다.²⁹⁾ <회보> 와 <신문> 에는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관리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다.³⁰⁾ 예를 들어, 1897년 7월 15일자 <신문> 의 "시세론"은 전국의 백성들로부터 "편하다 호는 말은 별노 업고 살수 업다 호는 말이 량자"하게 들린다고 지적하였으며, 1899년 1월 11일자 <회보> 는 관리들의 수탈이 극심하여 "빅성이 견딜 수 업서 민심이 흥흥하다"고 전하였다.³¹⁾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친 것은 "올흔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들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바른 법률을 장정하여도 그것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문명개화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는 자세였다. 세계의 "일등국"들이 부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인민호는 도라"인 것이다.³²⁾

두 신문에 따르면, 당시 법률은 "도모지 디종이 업서" 힘 있는 사람은 나라에 해 되는 일을 해도 충신이 되고, 힘없는 사람은 나라 위해 일 해도 역당(逆黨)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다.³³⁾ 또한 벼슬만 탐하는 관원들은 자기들 "일의 고로옴만 생각호고 빅성의 원억힘은 조곰도 슬피지 못호나" 억울한 백성이 송사(訟事)를 하여도 원고와 피고를 다 가두어 놓고 재판을 하지 않는 실정이었다.³⁴⁾ 이뿐

27) "론설," <신문> 1898년 12월 29일.

28) "사름의 자유권리" <회보> 1900년 3월 14일.

29) 유영익, "III. 갑오경장,"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국사편찬위원회, 2000), 199-200, 244-46, 300-301.

30) 예를 들어, "니보," <회보> 1898년 3월 16일; "니보," <회보> 1898년 4월 6일; "니보," <회보> 1899년 1월 11일; "엠티 청년회: 니보," <회보> 1899년 3월 8일; "니보" 1899년 6월 7일; "엠티 청년회: 니보," <회보> 1899년 11월 2일; "론설," <신문> 1897년 8월 26일; "잡보," <신문> 1898년 4월 7일; "론설," <신문> 1898년 12월 8일; "론설," <신문> 1898년 12월 22일.

31) "시세론," <신문> 1897년 7월 15일; "니보," <회보> 1899년 1월 11일.

32) "농리 편설: 미국의 흥왕," <신문> 1897년 7월 8일.

33) "엠티청년회: 니보," <회보> 1899년 2월 1일.

34) "시세론," <신문> 1897년 7월 15일.

아니라, 폐지된 연좌(緣坐)법을 다시 살리자고 요구하거나, 나라에서 혁파한 무명잡세(無名雜稅)를 여전히 걷어 백성을 못살게 하는 벼슬아치가 많았다.³⁵⁾ 따라서 민권이 존중되는 근대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힘써야 될 일은 근대적 법률 제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 범법자를 엄단하여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898년 6월 23일자 <신문>은 논설을 통해 법률을 바르게 정하고 그 법대로 시행하면 백성들이 법을 믿고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설은 백성들을 안심하게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은 결국 나라가 강대국의 멸시를 받지 않고 자주 독립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백성이 “나라해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백성이 강하면 다른 나라가 깔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인민주권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인권이었다. 두 신문에는 여성을 천하게 여기고 교육시키지 않는 전통적 관습을 비판하고 그것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였다. 1898년 8월 3일자 <회보>는 “녀학교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의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³⁷⁾ 이 기사에 따르면 조선 남자들이 “녀즈는 당초에 인류로 치지 안코” 다만 남자를 따라다니는 “흔 물건”이나 “노리개”로 여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등이 동등”한 인간이지만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남자에게 복속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여자의 신세가 “초목과 금슈보담 조곰도” 나은 것이 없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1901년 1월 3일자 <신문> 논설은 여성의 기본인권을 말하면서, “남녀의 분간이 업시 즈유흔는 거시 리치의 당연함”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 그런데, 조선에서는 여성을 천하게 여겨 남자에게 매여 살게 하며, “평상에 즈유흔는 권이 업고 즈유흔는 일이 업스나”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회보>와 <신문>에 의하면 여성을 천시하는 것은 문명개화 하지 못한 나라들의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서구나 일본처럼 개화한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³⁹⁾ 앞서 인용된 <회보>의 “녀학교론”은 미국이 “남녀의 권리를 동등으로 행한 후”에 “거룩한 부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 신문은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교육은 문명개화 및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진 것이다. 두 신문에는 국가의 성쇠와 운명이 여성을 교육시키고 안 시키는 데 달려 있으며, 여성도 교육을 받으면 남성 이상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교육받은 여성은 자립심을 가지고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권장하는 글이 많이 게재되었다.⁴⁰⁾

35) 예를 들어, “법률의 시비,” <회보> 1898년 10월 12일; “엡윗 청년회: 흉악한 형벌,” <회보> 1899년 5월 31일; “론설,” <신문> 1897년 8월 26일; “론설,” <신문> 1898년 12월 22일.

36) “론설,” <신문> 1898년 6월 23일.

37) “녀학교론,” <회보> 1898년 8월 3일.

38) “론설,” <신문> 1901년 1월 3일.

39) 예를 들어, “녀학교론,” <회보> 1898년 8월 3일; “엡윗 청년회: 부인의 교육이 데일 급무,” <회보> 1899년 2월 15일; “오희 문답,” <신문> 1901년 6월 20일; “녀인문답,” <신문> 1901년 6월 27일.

40) 예를 들어, “녀학교론,” <회보> 1898년 7월 27일; “니보,” <회보> 1898년 10월 19일; “니보: 부인의 상소,” <회보> 1898년 10월 26일; “엡윗 청년회: 부인의 교육이 데일 급무” <회보> 1899년 2월 22일; “농리 편설: 미국의 흥왕,” <신문> 1897년 7월 8일; “론설: 부인 교육론,” <신문> 1901년 2월 28일.

한글과 신문: 민족문자와 여론

서구에서 민족국가가 형성될 때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민족어를 국가의 언어와 문자로 확립하는 일이었다. 민족어를 확립하는 일은, 예를 들어 라틴어 같은 민족 단위를 넘어서는 언어 대신 민족어를 상업, 학문, 언론, 문학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천되었다.⁴¹⁾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인쇄물의 대량 출판 및 독서대중의 확대였다. 인민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언어·문자로 된 인쇄물의 대량 유통은 독자들 사이에 공통된 관심거리와 가치를 전파하여 공동체 의식, 즉 민족의식이 생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⁴²⁾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 신문들이 ‘한글’을 사용한 ‘신문’을 발행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했다. 두 신문은 한글만을 사용하면서, 한문을 비판하고 한글의 우수성, 중요성, 그리고 그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문명개화를 이루어 독립자강 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많이 발행하고 인민이 신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에 한글만을 사용한 신문은 〈회보〉와 〈신문〉 외에 〈협성회회보〉(〈미일신문〉), 〈독립신문〉 밖에 없었다. 이 신문들은 모두 기독교 신문이거나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신문들이었다.

두 신문은 한글이 조선 고유의 문자일 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문은 어렵고 불편한 문자일 뿐 아니라 민족어가 아니었다. 즉 한글은 민족 전체의 문자로서 문명개화의 도구였으며, 한문은 양반 식자층의 문자로서 죽은 학문의 도구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글의 광범위한 사용은 문명개화를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계층질서를 타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기사가 1900년 1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회보〉에 게재된 “한문글자와 국문글자에 관계”라는 글이었다. 여기에 따르면 서구 각국은 “국문”을 만들어 학문과 교육을 하였고 때문에 진보하게 되었다. 즉 서구의 번성이 “실상인즉 글자가 편리한 연고”라는 것이다.⁴³⁾ 그런데, 조선의 식자층이 사용하는 한문은 배우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넋적 일을 낯하고 이제 일을 낮게 녀기는 악습” 때문에 국문이 천대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림 글자”인 한자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들여와 쓰게 되었는데 이제는 “고질”이 되다시피 하여 고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⁴⁴⁾ 한자는 처음 배울 때 약간의 효험이 있지만 결국 쓸모없는 “씨그력이 학문”만 고집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로마 알파벳 같은 “구음을 짜라 지은 글자”는 배우기가 쉬워 서구 여러 나라가 국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황제의 조칙이라도 한문으로 써 붙여놓으면 백 사람 가운데 겨우 이삼 인밖에 읽지 못하는데 비해서, 국문으로 써 붙이면 남녀 불문하고 7·80명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국민을 지명진보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인민이 상하남녀 물론하고 학문을 비호기에 용

“녀즈 교육의 유익함,” 〈신문〉 1906년 5월 17일.

41) Anderson, 77-8.

42) Ibid., 37-46.

43) “한문글자와 국문글자에 관계,” 〈회보〉 1900년 1월 24일.

44) “한문글자와 국문글자에 관계,” 〈회보〉 1900년 1월 17일.

이”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에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문의 불편함을 비교하면서 신속한 문명개화를 위해 한글을 사용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특히 1897년 7월 29일자 기사는 세상에서 한문처럼 “질박하며 지리흔 글”은 드문데 비해서, 한글처럼 “묘하고도 용이할 글”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한글을 칭찬하고 한문을 양반들의 “병(病)”이라고 비판하였다.⁴⁵⁾ 청나라 사람들이 추하고 무식하며 교만한 이유가 그 “비속에 한문이란 적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니, 조선 사람들은 그 병을 피하고 “신속한” 한글을 사용해야 “신속한 공부,” 즉 실용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01년 5월 16일자 〈신문〉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말하면서 서구 각국은 문어를 구어와 같게 하여 인민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고 소개했다. 자신들이 한글로 신문을 내는 이유도 이와 같아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⁴⁶⁾

두 신문은 인민을 계몽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신문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신문의 역할과 그 효용성에 대한 대표적인 기사로는 1898년 3월 3일자 〈회보〉의 사설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설은 한 청나라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신문이 독자의 “이목을 북돋우며 정치의 득실을 논란”하기 때문에 그 “공효”가 많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신문의 공효는 먼저, 옛 사기에만 능통한 관리에게 세계의 일과 여향간의 소문을 알려주니 그 “고집된 믿음”을 고칠 수 있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니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여” 나라의 일과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다. 또한 신문은 “공평한 말과 유리한 글”을 통해 잘못을 누우치게 하고 백성을 깨우칠 뿐 아니라 통상과 경제를 도우니 그 “유익함이 던선과 룬선과 털로보담 더 장”하다. 결론적으로 신문은 그 “장대한 공효”가 모든 인민에게 두루 미쳐 “세상을 경제하는 약석”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회보〉는 신문의 역할은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을 전하여 “소문과 스리를 바르게 흐는” 데 있다고 하면서 신문과 책을 “기명에 긴요한 것”이라고 불렀다.⁴⁸⁾

신문이 세상 물정과 여러 가지 요긴한 정보를 전달하여 문명개화를 앞당기므로 신문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는 〈신문〉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⁴⁹⁾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이 담당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관리들의 “고집된 믿음”을 고치고 “공평한 말과 유리한 글”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문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보〉의 한 기사는 신문을 두고 “사람의 믿음을 합동케 흐는 기계,” 즉 여론을 형성하는 매개체라고 의미부여 한 후 인민의 선생이요 “절교 못할 친구”라고 칭하였다.⁵⁰⁾ 신문의 이런 기능을 고려

45) “지식,” 〈신문〉 1897년 7월 29일.

46) “세상에 큰일이라,” 〈신문〉 1901년 5월 16일.

47) “사설,” 〈회보〉 1898년 3월 30일.

48) “와언론,” 〈회보〉 1897년 6월 23일; “기명의 긴요한 것,” 〈회보〉 1898년 3월 2일.

49)

50) “절교 못할 친구는 신문지,” 〈회보〉 1900년 5월 30일.

한다면, 신문사가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경계하여 신문사의 수가 줄어들고 신문사 직원들이 “바른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도 당연했다. 〈회보〉와 〈신문〉은 한편으로는 당시 발간되는 신문들을 소개하며 읽을 것을 권하는 한편, 어떤 사정으로 신문이 정간될 때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⁵¹⁾

애국심: 민족의식

정부가 백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애국심이었다. 기독교 신문에는 조선 관리와 백성들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897년 6월 23일자 〈회보〉는 개화한 서구인의 애국심을 부러워하며 조선 사람의 이기심을 한탄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즉 서구의 인민은 “제 몸이 죽을지언정 남군과 나라를 위하여 싸움하고 전국 인민이 홍상 일심”이 되지만, 조선 백성들은 입으로는 삼강오륜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자기 몸만 생각하는고로 사람마다 각심”일뿐 아니라 서로 속이고 신의가 없다는 것이다.⁵²⁾ 비슷한 맥락에서 1898년 5월 5일자 〈신문〉의 논설은 조선의 관민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 형편을 “자기 집안일”로 여기는 사람이 “도모지” 없다고 지적하였다.⁵³⁾ 사람들이 모두 “자기 리 욕만” 생각하고, 편당을 지어 서로 홍보고 모해(謀害)하며,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다. 〈신문〉은 1898년 7월 7일의 논설에서 관리들이 나라는 “독립을 하던지 속국이 되던지 논의게 로예”가 되던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지위만 유지되고 월급을 받는다면 “늬이야 종노릇을 하던지 내게는 상관이 업는 일”로 생각한다고 개탄했다.⁵⁴⁾ 이와 같은 애국심과 애족심의 부족은 결국 조선이 정치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대국처럼 “즈쥬 독립국 형세”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 신문은 조선 인민의 애국심이 결여된 근본적인 이유를 ‘사랑’의 결핍으로 보았다. 1897년 8월 26일자 〈신문〉 논설은 나라의 흥망이 사랑에 달렸는데, 조선 사람들은 사랑을 알 지 못하는 것 같아 애석하다고 하였다.⁵⁵⁾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심합력 하여 나라를 위하지도 않고 서로서로를 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혈연 집단을 넘어서는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주 후의 논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설은 천하에 부강한 나라들은

51) “크리스도신문,” 〈회보〉 1897년 4월 7일; “샤설,” 〈회보〉 1898년 1월 12일; “니보,” 〈회보〉 1899년 4월 12일; “니보,” 〈회보〉 1899년 5월 31일; “니보,” 〈회보〉 1899년 12월 27일; “론설,” 〈신문〉 1898년 3월 10일.

52) “와언론,” 〈회보〉 1897년 6월 23일.

53) “론설,” 〈신문〉 1898년 5월 5일.

54) “론설,” 〈신문〉 1898년 7월 7일.

55) “론설,” 〈신문〉 1897년 8월 26일.

인민들이 모두 “동심협력 해야 스무를 보며 피츠 스랑하기를 형태와 궤치” 하는 데 비해서 조선의 인민들은 “다 각각 각삼”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⁵⁶⁾ 국가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의 부족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을사늑약’ 이후, 〈회보〉와 〈신문〉이 통합되어 발행되던 시절인 1906년 9월 27일의 논설도 문명국과 조선 국민들을 비교하며 이것을 언급하였다. 즉 문명국이 부강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일가보다 나라를 더 스랑”하기 때문인데, 조선 사람들은 “집안과 일가는 스랑하되 나라 스랑할 줄은 도모지 이지 못”하며, 그래서 나라가 약해지고 지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⁵⁷⁾ 이 논설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회보〉와 〈신문〉에 의하면 애국심의 유무는 결국 문명개화의 정도에 달려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명개화를 이룩하지 못한 청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의 애국심이 결여된 것은 당연했다. 1901년 9월 12일자 〈신문〉에 게재된 “인종과 기화의 등급”이라는 기사는 청, 인도,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인민이 반개화 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후, 그 증상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식의 결여를 꼽았다. 즉 이런 나라 인민은 약간의 개화만 이룬 후 더 이상의 문명 진보함을 바라지 않고, “실현 학문”을 강구치 아니하며 “즈기 잇습만 알고 나라히 잇습을 알지 못” 한다는 것이다.⁵⁸⁾ 〈신문〉은 한 달 후 “아세아 습관의 략론”을 통해 이점을 재차 지적했다. 즉 아시아 사람들은 구습에 빠져 있고 “실상 업는 학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일신만 심각하고 일국을 도라보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⁵⁹⁾ 이런 논리에 따르면 조선의 전통적 학문은 “헛된 글”일 뿐 아니라 중국 중심적이어서 독립심과 애국심을 길러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1899년 6월 7일자 〈회보〉는 조선 사람들이 몇 천 년 이상 된 중국 역사는 강구하면서 정작 자기 역사와 형편에는 몽매하며, 나라의 “흥폐 존망을 월시진척(越視秦瘠) 궤치”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⁶⁰⁾ 결국 백성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물정에 밝아져야 나라를 위하게 되고, 조선이 근대적 국제관계 속에 자주독립국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문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두 신문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전근대적 조선 사회에는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예로, 정부의 교육담당 부서가 먼저 사랑을 본받고 학생과 백성의 “두[뇌]”에 사랑을 심으면 조선이 “만국스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⁶¹⁾ 그런데, 당시 조선이 군주국이었기 때문에 애국은 곧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두 신문은 충군과 애국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런 경향은 특히 독립협회 활동 기간 동안 두드러졌다. 〈회보〉는 창간 직후, 아관파천 이래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이 환궁하자 그것을 크게 환영하였다.⁶²⁾

56) “론설,” 〈신문〉 1897년 9월 9일.

57) “론설: 교육과 사회의 관계 중서교회보 번역,” 〈신문〉 1906년 9월 27일.

58) “인종과 기화의 등급,” 〈신문〉 1901년 9월 12일.

59) “아세아 습관의 략론 (유몽천주),” 〈신문〉 1901년 10월 10일.

60) “중동전기를 번역함,” 〈회보〉 1899년 6월 7일. 또한, “론설 교조론” 〈회보〉 1897년 2월 24일; “학문론,” 〈회보〉 1897년 5월 5일; “도와문답,” 〈회보〉 1897년 5월 26일; “너보,” 〈회보〉 1898년 6월 1일; “엠티 청년회: 렉스와 디리가 요긴한 일” 〈회보〉 1899년 9월 6일.

61) “론설,” 〈신문〉 1898년 7월 7일; “적주의계는 젓시 맛당 하니라,” 〈신문〉 1898년 8월 11일.

이후 기독교인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그의 탄신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자, 두 신문은 그것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신문>의 “경축 만세”라는 기사는 “무한이 준비하신 상주께서 우리 대군주를 스랑하시 독립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여 신앙, 애국, 충군을 연결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모두 임금을 위해 만세를 부른다고 하였다.⁶²⁾

<회보>와 <신문>은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회보>는 황제즉위식을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그 날이 “단군 이후 스천여 년의 데일 영화롭고 크게 경축할 날”이라고 하였으며, <신문>은 황제국이 된 것을 경축하면서 “독립 기초를 태산 반석긋치 굳게” 세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⁴⁾ 그러나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전근대적 왕조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897년 8월 25일자 <회보>는 고종의 탄신축하 집회를 전하는 가운데, 신 앞에서는 “지천한 사람도 황태와 동등”하고, “사람의 권리가 진중”하며, “빅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서재필의 연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⁶⁵⁾ 이 기사에 의하면 “공평을 주장”하는 것이 개화의 한 요소였다. 창간 직후 <신문>은 1년 정기구독을 약정한 독자들에게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만든 “어(御) 사진”을 사은품으로 한 장씩 주는 행사를 했다. 이 신문은 광고를 통해 조선 역사 오백 년에 어 사진 모시는 일이 처음이고 백성 가운데 임금의 “탄인”을 본 사람이 극히 적으니, 어 사진을 모시는 것은 신민 된 자에게 측량할 수 없이 “깃브고 즐거운” 일이라고 선전하였다.⁶⁶⁾ 자본주의적 영업방식과 충군애국을 연결시킨 이 행사는 서구와 조선의 접점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위치를 보여준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나가는 말

<회보>와 <신문>으로 대표되는 한말의 기독교 신문은 조선을 근대화 시키는 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문명개화론의 전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을 새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문명개화론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독교 신문에 등장했다. 기독교 신문을 발행했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당대의 서구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조선의 상황을 바라보았으며, 그 기준에 따라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과 같은 위치에 있다가 청일전쟁으로 인해 비로소 근대적 국제질서 속의 한 독립국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전근대적 왕조국가였다. <회보>와 <신문>은 청일전쟁 이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조선 내부에서 전반적인 서구화를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성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시점에 창간되었다. 그리고 독립협회

62) “대군주 환어라,” <회보> 1897년 2월 24일.

63) “경축 만세,” <신문> 1897년 8월 26일.

64) “테조선 데일 경스,” <회보> 1897년 10월 20일; “론설,” <신문> 1897년 10월 14일.

65) “대군주 폐하 탄일,” <회보> 1897년 8월 25일.

66) 예를 들어, “광고,” <신문> 1897년 9월 22일.

의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장 활발한 계몽활동을 펼치다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이 사실상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그와 같은 계몽적 기사들이 사라졌다.⁶⁷⁾

선교사들이 신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근대적 민족국가는 인민의 주권에 기초한 나라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이 통치하고, 깨어있는 인민의 능력과 애국심에 의해 자주독립 하고 문명개화 한 나라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의 당면 과제인 독립자강은 문명개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문명개화론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회진화론이었다. 1900년 1월 〈회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세계의 형세는 “약한 자에 고기를 강한 자가 먹으며 조흔 거는 더욱 나아가고 나쁜 거는 여지없이 망하”는 상태에 있었다.⁶⁸⁾ 따라서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은 조선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의 문제로 보였다. 선교사들의 눈에 조선은 “약한 자”였고 “나쁜” 것이었다. 그들은 조선이 “강한 자”가 되고 “조흔”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했음에 틀림없다. 〈회보〉와 〈신문〉을 통해 수없이 등장했던 계몽적 기사들은 이점을 웅변적으로 증거 한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은 문명진보를 옹호함과 아울러 약육강식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근대적 민족국가 건립에 실패한 조선은 “강한 자” 일본이 강점했을 때 선교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왜 그런 태도를 보였던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말 조선에서 활동했던 서구의 선교사들은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조선에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회보〉와 〈신문〉은 그들이 생각했던 선교가 개종자 얻는 일을 넘어서는 무엇이었음을 알려준다. 두 신문의 발행에 관계했던 선교사들은, 적어도 신문이 문명개화론을 활발하게 펼친 시기 동안 조선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을 문명개화 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가운데 특히 이 글의 주제가 되었던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말 조선은 기독교 신문이 강력하게 장려했던 의미에서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일차적으로 조선 사람들의 책임과 관계된 문제였다. 문명개화와 독립자강을 전했던 기독교 신문의 노력이 한말의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보〉와 〈신문〉에 있는 수많은 계몽 기사들은 그들이 조선을 “우리나라”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해관계의 한계 내에서 조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오늘까지 남아있다.⁶⁹⁾

67) 류대영, 41.

68) “한문글자와 국문글자에 관계,” 〈회보〉 1900년 1월 24일.

69) 예를 들어, “조선 회보라 혼뜻술 발명홈이라,” 〈회보〉 1897년 2월 2일; “나는 분명이 알아요,” 〈회보〉 1899년 5월 3일; “동양대세,” 〈회보〉 1900년 2월 28일; “쓸터업는 숭봉,” 〈회보〉 1900년 8월 29일; “교회 통신,” 〈신문〉 1897년 7월 8일; “시세론,” 〈신문〉 1898년 2월 10일; “론설: 바람의 깃분,” 〈신문〉 1898년 9월 15일; “론설: 정치를 기량홈이 인심을 기량흐난 디 잇습,” 〈신문〉 1906년 6월 7일.